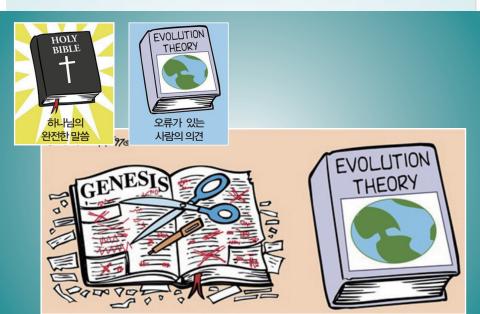
# CREATION TUTTON TO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3 Number 02 **02** 2015



# 유신론적 **진화**론 - 우종학 편 2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 우종학 박사(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의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에 대한 비판 글을 싣는다. 지난 호에는 다소 과학적 문제점에 대하여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저자의 성경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다루 고자 한다.

####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이다.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해석의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p. 110)

이 문장은 저자인 우 박사의 성경에 대한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저자가 "성경을 우삿시한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예수'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소홀이 해도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다음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자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일까? 저자는 책 전체를 통틀어 성경에 대한 이와 같은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실제로 이는 성경을 대하는 저자의 자세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점검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과연 저자는 왜성경을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했을까? 이는 책 전반을 읽을 때 쉽게이해된다. 왜냐하면 저자는 진화 역사를 진짜 역사로 놓고 이 진화론과 여긋나는 성경 내용은 진화론적 사고로 재해석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창조 과정에 대하여 극단적인 '유신론적 진화론'의 자세를

취한다. 책에서는 '진화론적 유신론'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유신론적 진화론'과 다를 바 없다.

"우주진화와 생물 진화를 인정하고 진화 이론을 수용한다"(p. 248).

"예를 들어 창조주가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생물을 창조했다고 보는 진화 창조론을 꼽을 수 있다" (p. 43).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저자 자신이 믿는 창조 과정은 책 말미에 잘 그려놓았다.

"138억 년 동안 우주는 멋있게 변해 왔다. 중력은 균일했던 아기 우주를 성장시켜 거미줄처럼 엮인 거시 구조로 바꾸어 놓았고, 오색찬란한 은하들이 병합되고 자라는 과정에서 수많은 별들이 피고 졌다. 별은 내부의 행융합 반응을 통해 탄소나 산소와 같은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다가 죽음을 맞이하며 우주 공간에 다양한 원소들을 뿌렸다. 이 원소들은 다음 세대에 태어난 별과 행성의 원료가 되었고, 지구상에 살고있는 모든 생물을 구성하는 탄소 원자 하나하나가 바로 이름 모를 별들의 내부에서만들어졌다. 과학은 은하와 별과 행성의 생성과 소멸을 담은 장구한 우주 진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흥미롭게 들려준다"(p. 242).

위의 글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우주의 역사는 단 한번도 관찰되거나 실험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저자의 진화론적 믿음일 뿐인데, 저자는 이 진화 역사와 상반되는 성경 내용을 진화론적으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창세기 1장을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자는 "창세기가 육하원칙에 의해 쓰여질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창세기 1장이 전쟁을 경험했던 한 주민의 전투기록과 같은 것이지 정보장교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쓴 전투기록이 아니라고 말한다(p. 210-212). 즉 창세기 1장을 전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한 주민의 전쟁기록으로 비유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그린 책이 아니라 제한된 시야를 가진 부정확한 사람의 책으로 전략된 것이다. 사실 육하원칙이란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사람이' 정한 기준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평가절하한다면, 이는 성경을 자신의 사고 아래 가두려는 무례한 자세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엄밀히 말할 때 육하원칙이 사람이 정했다고 치더라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이 요소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언제(태초에), 어디서(무無에서), 누가(하나님이), 무엇을(천지, 동식물, 별들, 인간을), 어떻게(말씀으로), 왜(사실 이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선 찾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필요한 각 요소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창세기 1장의 기록을 육하원 칙이 빠진 불완전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몇 백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 우주가 시작되었고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 되었다는 진화 역사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음도 비슷한 부분이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문제를 다루고. 신앙은 '왜'라는 문제를 다룬다고 말할 수 도 있다(p. 120)".

그러나 이는 결코 맞는 말이 아니다. 만약 신앙이 왜에 대한 문제만을 다룬다고 한다면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앙이 든지 사람들이 상상하는 철학에 어울리는 말이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은 (저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육하원칙의)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신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과의 다른 가장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다. 시공간 속에 일어난 하나님, 인간, 피조물, 사탄이 행했던 내용을 담은 역사 속에서 '왜'란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지 개념의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행하셨고,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이다. 크 리스천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간 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일 어 났는지 어느 역사책보다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만약 독자가 성경을 읽을 때 일 부러 이 부분을 무시해버리지 않는 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아래도 비슷한 내용이다.

"성경은 백과사전도 아니고 자연사를 담은 과학책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 내용 은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읽고 배울 수 있는 것이지" (p. 215).

그러나 성경이 백과사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주, 생물, 인간의 창조, 타락, 전 지구적인 격변적 심판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연사는 분명히 담고 있 다. 단지 저자가 진화론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저자는 창세기를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개념으로 쓰여졌다고 단 언한다.

"창세기는 몇 천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 과학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주 대폭발이나 우주 팽창 혹은 생물 진화를 하나님이 창세기 기자에게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고 하더라도, 창세기 기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과 우주관을 토 대로 글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 님이 대폭발을 통해 '우주 팽창을 시작하시니라' 라던가 '별의 내부 에서 행융합 반응을 통해 인간의 몸을 구성할 탄소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표현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p. 213).

그런데 우주가 폭발이나 핵융합으로 시작했고 생물이 진화되어왔다는 것은 누가 만든 단어며 작품인가? 모두 진화론적인 해석일 뿐이다. 별이나 우주 공간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석을 한다. 그런데 저자는 자기의 해석을, 말을 하지 않는 피조물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위에 놓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말씀하는 성경을 통해 피조물을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저자는 거꾸로 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는 성경은 해석해야 하고, 말을 하지 않는 피조물에 대한 해석은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저자는 이와 같이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지 않았던 과학자 스스로 알도록 하셨다고 주장한다. 아래 두 문단도 저자의 동일한 자세를 보여준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목적론적 질문을 제외한 모든 과학적 질문들을 궁극적으로 자연적 방식, 즉 '과학으로 답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는다고 가정하자는 말일세… 그런데 이런 전제를 크리스천이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 (p. 195).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다. 반면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계시로서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려준다"(p, 104).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런 자세를 꾸짖는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라"(욥 38:4) 과거에 대한 것은 언제나 거기 있었던 증인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단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자연이 이를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스스로 알 수 없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편견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어떻게 주관케 하시는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창 1:16, 18).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시 136:8).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 1:3). 우리는 이 구절을 또 다시 해석해야 할까?

저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 하기도 한다. "과학은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종교를 정화할 수 있으며, 종교는 맹목적 숭배와 잘못된 절대성으로부터 과학을 정화시킬 수 있다. 과학과 종교는 각각 서로 가 더 번영할 수 있는 더 넓은 세계로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다."(p. 106) 요한 바오로 2세는 1997년 진화론을 인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저자의 생각과 유사한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저자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하나님을 자연과정의 틀에 제한시키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을 진화과정에 맞추려는 자신의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섬과 별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신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는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 세계에 부여하셨던 자연법칙을 따라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 섬과 별과 생명을 비롯한 다양한 창조 세계의 구성물을 창조하고 계신다" (p. 244)"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 신을 우리의 설계 개념 안에 끌어 내리려는 것이다" (p. 199)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의 창조





행위이다. 저자는 창조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루지지 않으며 자연 법칙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오히려 창조 가 자연과정을 넘어선 설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설계 개념 안에 신을 가두어 놓는 '우물 안 개구리' 간은 자세라고 비판하 고 있다. 과연 진화라는 자연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저자의 생각과 자연을 초월한 분의 설계로 창조를 설명하려는 두 설 명들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제한시키는 것이란 말인가?

진화과정에 제한하는 아래 주장도 동일한 맥락에서 읽으면 저자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두 하나님께서 진화과정을 이용하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물리법칙 자체가 신의 작품이라면 자연현상을 신이 (창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지 않겠나" (p. 70).

"행성들이 공전하는 질서 있고 아름다운 태양계는 분명 신의 설계였을 테지만, 그 설계가 실제로 구현된 것은 태양이 만들어지고 행성들이 잇따라 만들어진 긴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야" (p. 88).

"신이 진화의 방식을 통해 생물들이 만들어지도록 설계했다면 어떤가?" (p. 89). "우주 진화는 창조의 과정이다" (p. 243).

"과연 신의 창조 방법을 기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p. 243).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자. 정말로 저자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세를 '성경을 우 상화하는 성경교'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인가? 아래 말씀을 읽어보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17).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5:39).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하신 것이라" (롬 1:2)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만약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교라면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교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경에 갇혀있는 성경 교인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한 시공간 속에서 성경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내 삶과 피조물에 대하여 성경 그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말 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 우종학의 아담과 원죄

우 박사는 이미 진화 역사를 사실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성경 역 사에 손을 댄다. 앞서 지적했듯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창세기 기록을 고대 근동 창조설화 중에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첫 사람 아담과 그가 행한 원죄도 성경에서 벗어나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저자는 첫 사람 아담의 창조를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창조가 아 닌 진화 방법의 결과로 주장하며, 아담의 원죄 문제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 아들이지 않는다.

"신이 자연선택이나 유전자변이 등과 같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진화의 방식을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p. 84)

"아담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p. 229).

저자는 진화론적 아담을 만들면서 "그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라고 반문 하며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간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자 신 스스로'에게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화론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타당성의 여부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보 면 아담에 대한 이러한 저자의 생각은 문제될만한 심각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이유'에 대한 한계를 넘어 '반성경적' 발상이다.

성경에서는 아담이 진화과정 속에 창조되었다는 어떤 분위기도 찾을 수 없다. 성경은 창조과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며, 특별 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창 1:31)고 기록하고 있다. 어디



에도 수백만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음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저자가 주장하듯이 진화과정으로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생각은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창조자의 성품과 전능하심에 손상을 입힌다. 즉 창조과정에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저자의 책뿐 아니라 진화 역사를 사실로 놓고 성경을 변형시켰던 모든 유신론적 진화론의 시도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이다.

지금까지 진화 인류학자들이 인류의 진화조상으로 발표했었던 소위 '인류의 공통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이 그리 많지도 않지만 이들 대부분은 모두원숭이, 인간, 조작품, 아니면 다른 동물의 신체 일부로 판정이 났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들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모두 진화론적 신념으로 단지형태만 가지고 해석한 것일 뿐이다. 이는 진화론자들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에서 공통조상을 진화의 증거로 내세우지 않는 것을 보아도 그 증거가 허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저자는 일단 아담이 진화 과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인간이어떤 방법으로 특별하게 되었는지 성경에 없는 '스스로'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다른 모든 창조물과 달리 인간이 특별하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맞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인간을 창조한 방법 자체가 특별하다는 뜻은 아니다" (p. 223).

저자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 문장을 읽을 때 구체적으로 이해되는데 아 담이 유일한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진화된 여러 개체와 집단들 가운데 선택된 존재라는 것이다. 즉 아담이 최초의 인간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미 아담의 시대에 다른 인간들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p. 232)

"인간의 진화가 한 개체에서 일어난 것인지 혹은 집단에서 일어난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생물학적 진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든지, 신은 한 인물이나 공동체를 택해서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진정한 인간이 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p.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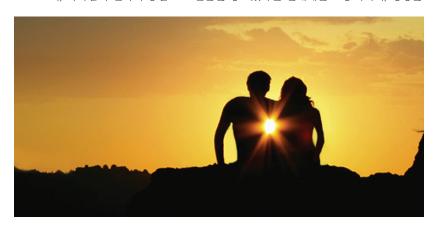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 대한 창조 방법과 과정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 자연적 방법이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처음부터 완전한 초자연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창 1:24-26)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며"(창 2:7)

"아담의 아내 하와는 그의 갈비뼈로"(창 2:21)

저자는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진화론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존재라는 것은 아 담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고 하지 아담이 선택되었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언제나 "첫 사람 아 담"(고전 15:45)이다. 저자는 아담에 대한 몇 가지 신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가운 데서도 "어느 견해든 신은 진화의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p. 233)고 하 며,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견해에는 포용적이며,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견해에는 반박하는 자세를 취한다.

저자가 아담에 대한 부분을 모두 진화론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 에 대한 부분도 모두 비성경적인 해석을 취한다.

"원죄가 사회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전승되는 것이라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일 필요는 없다… 원죄는 대표성의 원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p. 234).

아담이 인류의 조상일 필요도 없고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죄 지은 많은 사람 들 중에 아담이 대표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일까?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이 며, 이 때문에 사망이 왔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창세기 기록은 어떻게 된 것 인가?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한 '첫 사람 아담' 때문에 오신 '마지막 아담이



신 예수님'은 무슨 의미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왔다" (롬 5:12) 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행 17:26)에서 성경이 말하는 한 혈통은 아 담부터가 아니라 진화의 조상인 아메바란 말인가?

저자는 아담과 원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받기 위해 여러 신학자들을 나열한다. 그러나 이는 신학자를 나열할 문제가 아니다. 저자가 나열한 신학자들도 모두 진화론을 사실로 놓고 성경을 변형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저자와 똑같다. 진화역사를 사실로 믿고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놓고 성경 역사를 바꾸려는 시

도를 한 것이다. 아무리 유명한 신화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변형시키거나 성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신학이 등장했을 때 그 신학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진화론 등장 이후에 영국 신학자들이 만든 유신론적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 신앙을 전수했다면 왜 지금 영국교회가 전체 인구의 2%도 수용하지 못하며 몰락했겠는가!

저자는 그냥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편이 낫다. 마치 성경을 믿는 것처럼 들어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신앙인을 어지럽히며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크리스천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비롯되며, 특별히 창조사실이 담긴 창세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 전체가 흔들리며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난다. 그러나 저자는 책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아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읽으면 저자의 비논리적인 면을 어렵잖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통찰력 없이 읽다 보면 저자가 성경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힘들다. 저자는 분명히 아래와 같이 말을 한다.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에서 대해서는 멈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p. 212).

그러나 정작 저자 자신은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 가르쳐 주는 부분은 멈춤 없이 전개해나간다. 성경 어디에 우주가 대폭발이 있었고,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다가 인간이 되었고, 아담이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는가? 이런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는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으려는 생각은 위험하다"(p. 250) 그러나 정작 저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을 찾으려 하며 그 위험한 일 들을 스스로 하고 있다. 성경 어디에서 우주의 폭발과 진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 원죄가 사회적 전승이란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 저자의 책을 읽으면 진화 와 과학에 대한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한다든지, 해석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 는 것이라든지,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코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세상에 없던 진화역사와 사실이 적혀있는 성경 역사 는 결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교회가 '진화가 틀렸다고 해서' 다음 세대를 떠나게 한 것이 아니었다. '진화가 틀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다. 영국을 포함한 유 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이제 한국 교회도 여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 박사의 이런 식의 책이 등장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특별히 크 게 고개를 들지 않고 있다가 교회가 약해지는 시점에 겉으로 드러난다. 인류 역



사 이래로 사탄의 유혹이 멈추었던 적은 단 1초도 없다. 여기에는 교회도, 과학 자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 자신이 했 던 진짜 역사를 숨기는 것이며, 그 사실이 기록된 성경을 불신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종학 박사의 책이 출판된 것을 기회로 유신론적 진화론이 성경적으 로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허약하고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이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 가 될까 두려우니"(잠 30:6)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막 8:38) 이재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 **ACT** News

ITCM / 강사모임 / 탐사

#### 67I ITCM

6기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창조사역 집중훈련)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ITCM은 한국의 대학교 방학기간을 통해 8주간 진행되는 창조과학 집중훈련 프로그램입니다. LA에 위치한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는데, 성경, 세미나, 독서, 창조과학탐사. 야외 답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초를 두고 살아갈

다음 세대 리더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가장 심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가운데 창조과학 전임 사역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번 ITCM이 6기로써 아홉 명이 참가하여 열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ITCM도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창조과학선교회 강사모임

오는 3월 6-8일 창조과학선교회(ACT) 강사 모임이 있습니다. 미주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강사들이 모여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을 나누고, 앞으로 사역에 대하여 의논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이판 복음학교 창조과학탐사

지난 1월 5-7일 사이판 복음학교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생와 대학생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일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이판 복음학교뿐 아니라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과 ITCM 학생들도 함께 5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 최우성 박사

최우성 박사님께서 지난 9일 방사선 치료를 마치셨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ITCM 참가자들



# 창조과학 탐사

#### 간증

###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보너스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이 감격을 다음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에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기뻐합니다. – 이금련 신양석수교회〉

진화론의 허구성을 실감했고 모든 답이 성경에 있는 것을 새삼 확인한 기회였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대안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내 자신이 살아계신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있나 반성하면서 다음 세대에 중인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창조과학 탐사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 강일성(인양석수교회)

창조주 나의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과분하다 말고 내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모든 일정은 꿈이었습니다. 탐사를 통하여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 많으시고 내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부족하지만 창조과학탐사를 위해 중보 하겠습니다. — 안윤진〈오누리교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초대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민고 있었던 성경말씀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트가아닌 박스에 탄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주시리라 더 굳게 믿으며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한 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 사직동 교회 사랑합니다. - 박선희(온누리교회)

창조과학탐사를 올 수 있도록 여러 과정 속에서도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하신 일들을 직접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일까지 열심히 뛰시는 이재만 선교사님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 용혜 정(온누리교회)

많은 것을 마음에 담고 갑니다. 선교사님 존경합니다. 영국이 교회가 후퇴하고 미국도 후퇴하는데 선교사님 우리 한국은 후퇴하지 않도록 많이 힘써주세요. 다음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 노철구&김영리〈부산시작동교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창조과학 체험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치밀한 준비와 배려의 신경 쓰심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 *홍현자(사랑과평화교회*)

하나님 행하신 모든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여서 더욱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선교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 이연옥(은혜동산교회)

주님의 은혜로 창조과학 탐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냥 여행하는 코스로 알고 왔는데 그



10/2-9, 2014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와 노아 홍수 여러 가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의 문점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것들이 풀리어서 감사합니다. — 이성혜(은혜동산교회)

성경만이 진리이고 살길 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게 된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에게 필수 과정이란 생각이 들었고, 특히 다음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균형을 갖추신 이재만 선교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가슴 뭉클한 감사와 감격이 줄곧 느껴 졌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탐사기간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았고, 이 여행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 배효미〈부산수영로교회〉

막연히 마음으로만 믿고 있던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알게 되어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신석훈〈일산 든든한교회〉

창조과학 탐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한결 같은 열정으로 맡은 지식 속에 진행해주신 이재만 선교사님 께도 감사 드립니다. 새롭고 특별한 시간들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김성 기(용인은해동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단지 남편과 함께 여행이라는 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므로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했던 그릇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같이 좋은 것 하나는 너무나 훌륭하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을 많이 만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옥순(열린교회)

홍수 이전의 시생대라고 하는 창조시의 땅을 그랜드캐년의 협곡 속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위험성이 얼만 심각한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을 통해서 자연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지전능하심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하명권〈열린교회〉

창조과학회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말씀을 통해 저를 만지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서 할 일이 구체적으로 생기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 엄 애레〈온누리교회〉

창조과학 탐사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약간은 확신 치 못하는 맘으로 그저 믿음으로 믿자 라는 생각이었었다. 이번 탐사를 통해, 창조는 확실하며 성경이 참 진리의 말씀임을 확증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 이애경《산성교회》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역일정 JIS ACT Schedule

10	122	2 11		$C \supset I$	17	-CN	n
1/	122.	-//	14	nzi	- 11	UIV	ı

2/2-10	창조과학탐사 (대구화원교회), 이재만
2/14-16	창조과학탐사 (YWAM), 이재만
2/17-20	창조과학탐사 (행복한교회), 이재만
2/22	Sunnyside Church (이재만), CA
2/24-27	창조과학탐사 (더사랑의교회), 이재만
2/28-3/1	산라파엘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CA

3/6-8	창조과학선교회 speaker 모임
3/29	오렌지한인교회 (이재만), CA

4/5	오렌시한인교회 (이새만), CA
4/7-10	창조과학탐사 (R&R), 이재만
4/11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4/13-17	창조과학탐사 (수원성교회), 이재만
4/20-26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민

4/27-5/4 창조과학탐사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5/5-8	창조과학탐사 (성남금광교회), 이재만
5/11-14	창조과학탐사 (시애틀형제교회), 이재만
5/16-21	창조과학탐사 (천안제자교회), 이재만
5/21-27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3-25	창조과학탐사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김선목
5/28-6/4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 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